

원저

<<傷寒論>> 太陽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 方法論에 關한 研究

백성욱 · 손성철 · 이준범 · 황민섭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Based on the Study of Tai-Yang-Bing(太陽病)-

Back Song-ook, Son Seong-cheol, Lee Jun-beom, Hwang Min-seob and Yoon Jong-hwa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Tai-Yang-Bing(太陽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Tai-Yang-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bladder meridian that oversees the skin of the human body.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Tai-Yang-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mall intestine meridian · bladder meridian and governor vessel.

- 접수 : 2004년 12월 20일 · 수정 : 2005년 1월 13일 · 채택 : 2005년 1월 14일
· 교신저자 : 황민섭,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16-528-0247 E-mail : acup99@hanmail.net

Key word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summary of Liu-Jing-Bing, Tai-Yang-Bing.
<<Su Wen · Re Lun>>

I. 序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¹⁻³⁾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⁴⁻⁵⁾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적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開發하였다.⁶⁻⁸⁾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의 次例로 轉載하였고,⁹⁾ 唐·孫思邈의 <<千金翼方·卷九·卷十>>을 바탕한 唐本傷寒論으로,¹⁰⁾ 北宋·林億 등은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쳐 定本人 <<宋本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하여 傷寒 學術發展의 基礎를 마련하였다.¹¹⁾

金·元代는 龐安時的 <<傷寒總病論>>과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中心으로 八綱辨證을 통하여 ‘辨證思想’이 重視되었고, 許叔微 <<傷寒發微論>>에서 ‘三綱鼎立’學說이 提起되었고, 明·清代는 ‘錯簡重訂’, 尊王(叔和)贊成(无己)을 주장하는 ‘維證舊論’, 同時에 ‘以方類證’을 爲主로

한 ‘辨證論治’派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어 傷寒 學術이 크게 發展하였다.¹²⁾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¹³⁾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¹⁴⁾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¹⁵⁾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鍼灸學的 運用方法을 探索하기 위하여 張仲景의 <<傷寒雜病論·序文¹⁷⁾>>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太陽經 提綱^{14,18)}이 形成된 淵源 및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方法을 研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 (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 (兩陰交盡, 至絕作朔晦) 으로 多, 少, 衰變의 三

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眞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¹⁹⁾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厥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¹⁸⁾, <<黃帝內經>>과 中古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⁰⁾.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說에 關하여서는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를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 과 “三陰三陽

의 外感熱病說” 의 二種類가 있다.²⁰⁾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을 六經傳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를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에 關하여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南京²¹⁾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의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¹⁸⁾

2. 太陽經²²⁻²³⁾

1) 太陽經의 生理

太陽은 六經의 首가 되고 一身의 陽氣를 統營하므로 體表가 外邪의 侵入에 防禦하고 他經에 비해 役割의 重要性을 들어 <<素問·陰陽類論>>에서 太陽을 “經, 父”에 比喩하였다.

<<素問·六微旨大論>>에 太陽의 上에는 寒氣를 治하고 中에 少陰이 見하여 太陽은 表가 되고 寒이 本氣가 되며,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言及한 表·本·中氣從化의 觀點에서 보면 太陽의 本은 寒이고 標는 太陽之陽이 되는데 太陽은 寒與陽, 즉 外陽內陰 혹 表陽本陰이 되어 標本陰陽이 互見하므로 從本從標하게 된다.

經脈과의 聯關性에서 足太陽膀胱經은 寒水에, 手太陽小腸經은 丙火에 屬하니 手が 足を 따라 氣化하여 兩經間에는 寒水가 主管하게 되며 手太陽經脈은 手少陰心에, 足太陽經脈은 足少陰腎에 絡하여 太陽經의 中氣는 少陰의 熱氣가 된다.

足太陽은 寒水로 主令하고 手太陽火는 水를 따라 寒으로 氣化하게 되며 太陽經에는 水火가 并通하나 寒水로 命名하는 것은 水中의 陽은 上

升하여 火가 되므로 陰陽水火의 升降原理가 되며, 太陽經은 寒으로 代表되나 從本從標하여 寒과 熱을 나타내고 水火가 相濟하여 平衡狀態를 維持하며, 太陽은 寒水之經으로 一身의 表를 主管하며 少陰本熱의 蒸化를 得한 然後에 外로 體表에 達하여 周身に 布濩되어 固表御邪의 表陽作用을 나타낸다.

太陽之氣란 人體에 對한 衛外機能의 概括로서 衛外之氣는 體表의 眞氣로 敷布되며 여러 臟腑의 機能과 聯關되며 主된 機能은 膀胱經의 氣化作用이며, 膀胱經의 機能은 小便과 汗의 正常的인 排泄로서 水液의 管理와 眞氣의 調節 및 蒸騰을 主宰하며, 太陽은 三陽의 表로서 氣化의 目的이 上行外達하는 것에 있고, 人體의 抗御機能과 體表氣化를 主持하므로 陽氣 특히 衛氣를 外로 敷布하여 太陽은 “開” 가 된다.

2) 太陽經의 病理

開機란 人體 精氣의 運行, 敷布, 轉輸, 利用 및 排泄 등의 機能을 總括하는 것으로 開機의 失職은 必然的으로 人體의 異化過程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太陽 開機의 主要 機能은 陽氣 즉 衛陽之氣를 體表에 敷布하는 것이며 開機 失利로 衛外不力하면 쉽게 表證에 感觸되거나 暴病이 發生하게 되며 汗孔의 開闔不利로 膀胱氣화에 紊亂이 發生하므로 <<靈樞·根結>> “開折則肉節瀆而暴病起也”고 하였다.

標·本·中氣從化의 觀點에서 標本만으로는 太陽經에 發生하는 症狀을 理解하는 것은 完全치 못하며 中氣의 作用을 包含하여야 한다. 外邪가 처음 表部를 侵入했을 때에 나타나는 惡寒은 本氣인 寒에 依하여 나타나는 症狀으로, 發熱은 標氣의 熱로 나타나는 症狀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太陽經의 表病이 本腑에 影響을 미쳐 脈浮, 發熱, 口渴, 小便不利 등이 생기면 發汗으로 利小便하고, 太陽 本腑의 病이 經表에 影響을 미쳐 心下滿微痛, 頭項強痛, 無汗, 發熱이 있을 때에는 小便利하여 解外하는 方法을 運用할 수 있다.²⁴⁾

<<素問·生氣通天論>>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이라 하였는데, 이는 陽氣의 運養機能을 指稱하는 것으로 ‘運陽’이란 陽氣가 運行不息

하는 機能을 통해 精微物質을 輸送하여 神과 筋에 滋養作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太陽之氣의 障礙가 筋의 病變을 發生시키므로 “周身筋脈, 惟足太陽爲多爲巨, 其下者, 結于踵, 結于腓, 結于臑, 結于臂; 其上者, 挾腰脊, 絡肩項, 上頭爲目上綱, 下結于項, 故凡爲攣爲弛爲反張載眼之類, 皆足太陽之水虧, 而主筋所生病者.” “衛氣失所, 則當開不開, 當閉不閉, 不得其宜, 爲寒所襲, 結于筋絡之間.”라 하여 發病은 ‘結’하는 곳에서 시작되며 經筋은 經脈之氣가 ‘結·聚·散·絡’ 하는 筋肉으로 四肢百骸를 連綴시키고 骨骼을 約束하며 關節運動을 하는 것으로 十二經筋 중 足太陽膀胱經이 首位에 排列되어 있고, <<靈樞·經脈>> “膀胱足太陽之脈……是主筋所生病……” 하였다.

以上을 살펴보면 太陽經의 主된 病機는 因寒主凝閉와 衛外之氣가 伸張하지 못하는 證候와 足太陽經筋의 疼痛을 爲主로 한 症候群이다.

3. 太陽病 提綱의 淵源

<<傷寒論>>의 제1조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은 太陽病 提綱으로서 <<注解傷寒論·辨太陽脈證并治法上第五²⁵⁾>>에서 提案된 것은 아니다.

<<傷寒論條辨·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第一²⁶⁾>>에는 “此揭太陽之總病, 乃三篇之大綱, 已下凡首稱太陽病者, 皆指次而言之也.”라 하여 太陽病 提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尙論·太陽經上篇·太陽經受病之初, 有定脈定證一法²⁷⁾>> “太陽之爲病”의 條에서 “先挈太陽病之總脈總證, 統中風傷寒爲言也.”고 하여 太陽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太陽脈證²⁸⁾>>에서 “太陽은 表部를 主管하고 太陽經의 提綱은 外感에 關한 立法으로 此條는 太陽病 提綱이다.”고 하였다.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傷寒論注·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²⁹⁾>>에서 太陽病 제1조를 “首揭次條, 爲太陽病之提綱, 凡上, 中, 下三篇內稱太陽病者, 皆指此脈證而言也.”라 하여 此條를 太陽病의 脈·證을 包括하는 太陽病의 概括로서 此條의 位置를 格上시켰다. 이에 관하여 陳³⁰⁾은

“此條는 脉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太陽經 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설명하고 太陽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²⁸⁾>>에서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脉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고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으로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고 하였고, <<傷寒貫珠集·太陽正治法·太陽病脉證三條³¹⁾>>에서 六經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概括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한 <<傷寒論綱目·總論³²⁾>>에는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으로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고, <<傷寒約編·太陽證提綱³³⁾>>에서 “太陽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太陽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고 하였다.

4. 太陽病 提綱의 研究

(原文) 太陽① 之爲病, 脈浮②, 頭項強痛③ 而惡寒④. (1)

(解釋) 太陽에 病이 들면, 脈象이 浮하고 頭部와 項部가 뻣뻣하고 아프며 오싹오싹하게 寒氣를 느끼는 症狀이 나타난다.

(註解) ① 太陽: 吳²⁹⁾는 “太陽은 膀胱經이다”고 하였고, 楊²²⁾은 “太陽은 手太陽小腸經과 足太陽膀胱經을 包含한다.”고 하였다. 또한 姜⁸⁾은 “太陽은 手太陽小腸經과 足太陽膀胱經을 包含하며, <<傷寒論>>의 太陽은 足太陽膀胱經에 比重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黃³⁴⁾은 “<<傷寒論>>에서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豁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고 주장하였다.

黃³⁴⁻³⁵⁾은 “太陽은 寒水로서 氣化를 行하고 六

經을 統營하고 營血과 衛氣를 모두 統括한다.” 하였고, 陣³⁰⁾은 “太陽은 心主의 神機와 合하여 內外로 出入하는 開經의 作用으로 環轉無端하여 皮, 毛, 肌, 肉, 關節, 津液, 汗, 小便, 周身の 氣血, 經脈筋骨을 主管하며 太陽의 經氣는 諸經과 相通한다.”고 하였다.

② 脈浮: 楊³⁶⁾은 “浮診法은 皮膚上에 輕按하며 表裏의 虛實을 診候한다.”고 하였다. 足太陽膀胱經은 六經의 首로서 皮膚를 主管하고 榮衛를 統營하고 疾病 罹患의 始作이며, 皮膚의 榮衛를 統括하고 風寒을 最初感受하는 足太陽膀胱經에 發病하면 表에는 榮衛가 循行하고 있다. 肌肉上에서 나타나는 脈象인 浮脈은 表를 主管하므로 寸과 尺에 모두 浮脈이 나타나면 太陽經의 病으로 診斷할 수 있다 하였다.^{26-27,37)}

<<傷寒論·傷寒例第三>>의 제90조 “尺寸俱浮者 …… 太陽受病也”라 하였는데, 柯²⁸⁾는 “脈浮는 脈體의 正面을 말하며, 浮脈 가운데 強·弱·遲·數·緊·緩·滑·澁·弦·芤를 細心히 診斷하고, 太陽證에는 浮·浮弱·浮緩·浮遲·浮數 등의 脉은 諸條에서 보인다.” 하였고, 楊³⁶⁾은 “尺寸俱浮는 太陽의 受病이며 …… 尺寸俱浮而有力하면 發汗하고 …… 浮而長하면 太陽陽明의 合病이고 浮而弦하면 太陽少陽의 合病이며 浮脈은 表部를 主管하며 攻下法으로 治療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頭項強痛: <<素問·熱論>>의 “巨陽者, 諸陽之屬也, 其脈連于風府, 故爲諸陽主氣也.”와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의 內容으로 생각되는 <<傷寒論·傷寒例第三>>의 제90조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當一二日發,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痛, 腰脊強”은 太陽經과 有關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 朱¹³⁾는 “此條의 太陽을 足太陽膀胱經으로 解釋하고 太陽經은 모든 氣를 統括하므로 太陽經이 循行하는 部位인 頭, 項, 腰, 脊 등에 風寒이 侵襲하면 頭項痛, 身體痛, 腰脊強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龐²⁶⁾은 “六經의 最 外層의 經絡으로 皮膚를 主管하고 榮衛를 統括하므로 皮膚榮衛의 經絡에 風寒으로 受病하

면 正邪의 爭憂로 膀胱經이 循行하는 部位에 強痛이 생긴다.”고 하였고, 張³⁸⁾은 “陽氣는 人體의 上部에 있어 頭, 項痛만 나타나고 身痛, 腰痛이 없는 것은 太陽病의 太陽之氣에 病이 드는 始初이다.”고 하였다.

④ 惡寒 : 程³⁹⁾은 “體外는 陽이고 表이며 寒邪는 陰에 屬한다. 表虛하여 寒邪가 侵襲하면 陰盛陽虛가 되고 陽虛하면 衛氣가 皮膚를 따듯하게 할 수 없어 皮部가 空虛하게 되어 發生한다.”고 하였고, 張³⁸⁾은 “寒은 陰邪이고 巨陽은 表에 있어 陰陽邪正이 相合할 수 없어 惡寒한다.”고 하였고, 柯¹⁵⁾는 “病邪가 表에 있어 惡寒하고 六經에는 모두 惡寒이 있다. 太陽은 寒水의 經에 應하여 氣化하므로 惡寒이 특히 甚하며, 陽明은 二日에 惡寒이 그치고, 少陽의 往來寒熱, 內部에서 일어나는 三陰의 惡寒과는 顯著히 다르다.” 하였다.

그리고 太陽病 提綱에 發熱의 症狀이 없는 것에 對하여 柯¹⁵⁾는 “太陽病에는 身痛, 身重, 腰痛, 骨節疼痛, 鼻鳴干嘔, 嘔逆, 煩燥, 胸滿, 背強, 咳渴, 汗出惡風, 및 無汗而喘證 등의 症狀이 他條에 散在되어 있지만 太陽病 提綱에 넣지 않고, 또 太陽病은 巨陽으로 陽病에는 반드시 發熱이 있지만 發病初期에는 없을 수도 있어 太陽病 提綱에 넣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昺⁴⁰⁾은 “傷寒에는 論할 必要도 없이 惡寒이 있고, 中風도 때때로 惡寒이 있으며, 濇病初期에도 반드시 微惡寒이 있다.” 하였고, 李⁴¹⁾는 “外感의 初期에는 惡寒과 發熱이 同時에 보이지만 發熱을 提綱에 넣지 않는 것은 惡寒은 外感 初期의 반드시 있어 標識가 되며 發熱은 比較的 늦게 出現한다.”고 하였다.

<<傷寒論>> 제1조의 脈浮, 頭項強痛, 惡寒의 8字는 太陽病의 提綱으로 邪가 太陽經에 緣하여 他經에 미치지 않는 것이며,³⁵⁾ 三陽의 脉에는 모두 浮脈이 있고, 三陽의 證에는 모두 頭痛이 있고, 六經에 寒邪가 侵襲하면 모두 惡寒이 있다. 그러나 頭項強痛은 太陽에만 있다. 만약 脈浮 發熱 惡寒하고 頭不痛 項不強하면 太陽病이 아니며, 頭痛만 있고 項痛이 없으면 太陽病의 正證이

아니며, 頭項強痛, 不惡寒, 脈沈하면 太陽病이 아니다.²⁸⁾

그리고 六經病 提綱을 太陽病 提綱으로 類推하면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包含하는 諸疾病을 分經·定證하는 綱領이 된다.

III.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簡 및 漢牘 중에서 先秦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¹⁹⁾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에는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外感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12,42)} 東漢 末의 著名한 醫家 張仲景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 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的인 論述, <<難經·五十八難>>의 ‘廣義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과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⁴³⁻⁴⁴⁾

그리고 唐⁴⁵⁾은 “<<漢書藝文誌>>와 <<鍼灸甲乙經>>에 根據하여 보면 仲景의 書는 <<內經>>에 本을 두고 있으며, 伊尹, 扁鵲, 倉公의 湯液法을 繼承하였고 …… 醫門의 仲景은 儒門

의 孔子와 같은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傷寒論에 關한 研究에 있어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의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하였고, “戰國後期의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 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법은 각각 獨立의 發展하였고 …… 解剖學의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の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的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의 連貫性을 논술하였고, 金²³⁾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첫째, 太陽病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둘째, 太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證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差異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性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

論者는 <<傷寒論>> 六經病의 脈과 證의 關係에 對한 考察은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完하는 鍼灸療法의 研究에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傷寒雜病論·序文>>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太陽經 提綱이 形成된 淵源과 鍼灸學적 分經 및 分證하는 方法에 關한 研究를 하였다.

宋·明·清代의 <<傷寒論>> 注家들은 제1조인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의 太陽病 提綱을 外層의 皮膚를 主管하는 足太陽膀胱經의

病으로 認識하여, 榮衛의 生理·病理的인 面에서 註釋하였다.

六經病의 提綱에 對하여 柯¹⁵⁾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太陽은 表症 表脈에 重點을 두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다.”고 하였고, 徐³³⁾는 “六經病의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太陽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최근 單⁴⁶⁾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고 하였고, 楊²²⁾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는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鍼灸治療와 方劑治療의 差異에 대하여 吳⁴⁷⁾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証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고 하였고, 또한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因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피 施術을 한다.” 하였다.

太陽病 提綱인 “脈浮, 頭項強痛而惡寒”에 關하여 張⁴⁸⁾은 “太陽은 氣를 主管하고 皮膚, 毫毛, 肌膚의 表部를 統括하는 ‘通體’와 太陽經이 循行하는 部位를 ‘分部’로 區分하고, ‘通體’의 表陽에 病이 있으면 脈浮하고 ‘分部’에 邪가 미치면 項強한다.”고 하였으며, 柯¹⁵⁾는 “病邪가 表에 있어 惡寒하고, 六經에는 모두 惡寒이 있다. 太陽은 寒水의 經에 應하여 氣化하므로 惡寒이 특히 甚하며, 陽明은 二日에 惡寒이 그치고, 少陽의 往來寒熱, 內部에서 일어나는 三陰의 惡寒과는 顯著히 다르다.”고 하였으며, 또한 柯¹⁵⁾는 “心을 三陽의 夾界로 삼아 ‘內有心胸, 外自巔頂, 前至額顛, 後至肩背, 下及于足, 內合膀胱’을 太陽地面(六經地面說)으로 새롭게 解釋하고, <<素問·陰陽離合論>>의 ‘太陽主開’는 太陽이 表를 主管하는 根據로 脈浮, 惡寒, 頭項強痛이 太陽病의 提綱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體質醫學에 있어 19世紀 末葉의 李⁴⁹⁾는 <<傷寒論>>을 中心으로 宋·金·元·明代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病理·診斷·治方의 理致를 論述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였다. 그는 “<<傷寒論>>의 太陽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名目이고,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是 人物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 <<傷寒論>>의 六經病 중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고 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中心으로 한 八種類의 臟腑病 理論을 中心으로 한 症狀 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이는 <<傷寒論>> 研究 過程에서 認識의 轉換으로 向後에 鍼灸 療法の 研究 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證에 따른 症狀 中心인 隨證配穴의 鍼灸 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鍼灸 處方을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 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 治療 方法의 研究로 方向 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傷寒論>> 太陽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分證의 運用 方法을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繼承하여 發展되었다.
2. 太陽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으로 因해 太陽經으로 罹患되는 症狀의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3. <<傷寒論>> 注釋家들은 太陽病의 提綱을 人體의 皮膚를 主管하는 足太陽膀胱經의 榮衛氣의 生理·病理的 方面으로 解釋하였다.

4. 太陽病의 鍼灸 治療의 穴位는 手·足太陽經과 督脈의 要穴을 中心으로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取穴’하는 辨證論治의 觀點으로 用鍼한다.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중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15(1) : 181-200.
2. 이정훈, 윤중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16 (2) : 139-179.
3. 서용원, 윤중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中 <<脈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 210-2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중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중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19 (1) : 210-2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1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23.
9.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學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전. 1998 : 1-19.
14. 陳明·劉, 燕貨, 張保偉 撰次整理 :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21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7. 162-166. 178-198.
16.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사. 이언스북스. 2002：178.
17. 葉橘泉 收藏：古本康平傷寒論.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1-3.
18. 李心機. <<傷寒論>> 疑難解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9：40-41. 51-5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華夏出版社. 1995：6-9. 48-51.
2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 譯釋.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2.
22.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203-206.
23.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關한 研究. 서울：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101-106. 117.
24.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0：204. 224.
25.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66：54.
26. 方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大星出版社. 1995：775-7.
27.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9.
2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7. 159-162. 178-179.
29. 吳謙等編.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10.
30.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237. 287.
31.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2-3.
32.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14-619.
33.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807.
34.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539-541.
35. 黃元御：黃元御醫書全集·傷寒懸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60-61.
36. 楊璿. 傷寒瘟疫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7-8.
37. 滑壽. 難經本義.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32.
3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宗印.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27.
39. 程國彭. 醫學心悟.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60-61.
40. 曹穎甫. 近代中醫珍本集·傷寒分冊·傷寒發微.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8.
41. 李金華. 中醫四大經典學習指導.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9：117.
42. 山田慶兒. 新發現 中國科學史資料의 研究·譯註篇. 京都：中村印刷株式會社. 1976：363-404. 405-416.
43. 班固 著, 李世烈 解譯：漢書藝文誌. 서울：자유문고. 1995：306-321.
44.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4：114. 116-125.
45.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0：183.
46. 單玉堂. 傷寒論鍼灸配穴選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22-26. 36.
47. 施士生 校釋. 吳崑 著. 鍼方六集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1：271-316.
4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27.
49.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誠理會出版社. 1967：117-122.